

# 양돈정보 수집 · 보급 시스템을 체계화하자



조 광 호 교수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현대를 정보화의 시대라 하며 우리 모두가 정보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생산비 절감, 품질의 고급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정보화가 필수적이며, 각종 관련산업의 동향, 정부 시책이나 외국의 생산 소

비, 수출입 동향, 관련분야의 연구 등 많은 것들도 정보화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보화의 총아로서 개인용 컴퓨터(PC)의 개발·보급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아울러 관련 소프트웨어도 크게 개발되어, 이제는 웬만한 일은 컴퓨터를 통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되었다. 그러더니 몇년 전부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기 시작하였고, 정보화하면 인터넷을 꼽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변화하였으며, 이제 학생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모르면 숙제도 제대로 못할 만큼 되었고, 학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관련 문헌을 검색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빨리 보급되는가? 인터넷이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한 거대한 정보의 바다이다. 즉 전세계 수백만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각종 정보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다른 수많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

보의 바다를 향해하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가장 값싸게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의 활용 정도가 성장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게을리 하면 낙후되고 결국 도태된다는 것이다.

현재 양돈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양돈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인터넷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즉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 검색할 줄 알아야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를 비교적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양돈에 관한 기술 정보는 농촌진흥청([www.rda.go.kr](http://www.rda.go.kr)), 연구에 대한 것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연구정보센터([aginfo.snu.ac.kr](http://aginfo.snu.ac.kr)), 기술 및 시세 정보는 한국 양돈 정보 시스템([www.chollian.net/~seldst8/index.htm](http://www.chollian.net/~seldst8/index.htm)), 축산물 가격 정보는 축협 한우리정보([www.nlcf.co.kr](http://www.nlcf.co.kr)), 양돈 관련 소프트웨어와 관련 산업 정보는 농림수산정보센터([www.affis.or.kr](http://www.affis.or.kr)), 양돈 관련 시책은 농림부([www.maff.go.kr](http://www.maff.go.kr)), 돼지 질병 관련 정보는 수의과학연구소(210.119.48.7), 각 지역 양돈 정보는 각 도 진흥원 등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이트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근래에 이르러 농림한마당([www.agr.or.kr](http://www.agr.or.kr))의 <관련기관, 단체>를 통해 여러 기관이나 단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경상대학교 이정규교수가 “양돈 연구”와 함께 “축산관련 사이트 link”([www.intech.co.kr/swine](http://www.intech.co.kr/swine))를 만들어, 비교적 쉽게 국내의 축산 관련 기관이나 정보제공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사용자는 일일이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서 어떤 내용의 정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예컨대, 여러 양돈 분뇨처리 방법의 장단점을 알아 보고 자기 농장에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고 싶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가야 하며, 세금에 문제가 있어 관련 세법을 알고 싶으면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고,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 또 내가 쓰고 있는 사료가 다른 사료에 비해 어떤점이 좋으며, 가격이 얼마나 차가 있는가? 일본이나 미국의 비육돈 생산비는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으면 어디를 찾아야 하고, 모든 연간 회전율을 2.3회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하는가? 농민들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이트를 알기가 쉽지 않다.

관련 정보의 획득 및 이용 정도가 발전의 척도가 된다면, 우리 양돈 발전을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건 양돈인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양돈인들에게 양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돈인의 단체인 양돈협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나, 아직은 양돈협회 홈페이지마저 없으니, 우리 양돈협회가 정보화에 그만큼 뒤져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양돈협회의 주요 역할로서, 양돈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 보급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양돈 농가는 어느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또 이를 탐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정책, 경영, 시장, 기술, 질병, 무역 및 전산 등 양돈에 관한 각종 정보와 통계뿐 아니라, 사료, 약품, 종돈, 시설, 기계, 가공 등 양돈 관련 산업 정보와 최근의 양돈 연구 동향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양돈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들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우면 홈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사이트를

찾아가라는 등의 상세한 안내와 관련 사이트를 링크시켜주는 기능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양돈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양돈협회 Homepage를 방문하고, 여기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 관해 알고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양돈협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련 사이트를 탐색하다가 필요한 정보는 끌어다 놓거나 링크시켜 놓으면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돈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돈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요구에 맞게 분석·가공하여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에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문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검색 전문 사이트인 야후나 심마니처럼 광고를 넣어 비용을 충당하면 될 것이다.

양돈인에게 필요한 정보는 양돈협회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 양돈에 관한 종합 Homepage를 만들어 '양돈' 하면 '양돈협회 Homepage'를 방문하고, 여기서 양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돈협회 홈페이지의 전자우편이나, 토론 모임을 통해 양돈에 관한 기술이나 각종 정보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며 토론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서로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의견을 제시하며, 각자의 경험을 교환해야 한다. 관련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양돈인들이 쉽게 선택하게 할 뿐 아니라, 상품의 주문과 대금 결제의 중개 역할도 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물 판매에 대한 정보를 신속 정확히 제공하여, 양돈인들이 제값을 받고 돼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인터넷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양돈인들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양돈협회가 앞장서 이끌어 가야 한다. **養豚**